팍팍한 현실 공연보며 힐링…연말 광주 공연계 표구하기 전쟁

콘서트·뮤지컬 등 12월 스케줄 15개…월말 공연도 일찍 매진
관객 취향 뚜렷…가수 박효신·김범수 같은 날 공연에도 대박
'티켓 파워' 가수 집중·제2 DJ센터 등 공연장 증가도 이유

성시경 박효신

지역에서 가장 큰 기획사인 티켓마루는 12월 콘서트를 기획하며 고민에 빠졌었다. 공연 일정상 박효신과 김범수 콘서트를 같은 날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연을 강행했고 두 공연 모두 대박을 터트렸다. 관객 성향이 뚜렷이 갈린 덕이다.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는 12월은 공연계 최대 대목이다. 장기 공연을 진행하는 뮤지컬은 물론이고, 특히 관객 동원력이 뛰어난 대형가수들의 경우 연말 전국 투어는 필수요소다.

12월 광주 공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콘서트가 열렸으며 일부 공연의 경우 표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물론 고전을 면치 못한 공연들도 있다. 12월 한달간 광주에서 열렸거나 예정된 콘서트는 무려 15개에 달한다.

지역 기획사들은 이같은 추세의 이유로 기본적인 연말 특수에다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대형 가수들의 힘을 꼽았다. 여기에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이 늘어난 점, TV프로그램 영향 등도 티켓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원인은 가수들의 힘이다. 20일 염주체육관에서 공연 한 박효신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티켓 오픈 몇십분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박효신은 올해 '야생화' 등의 인기곡을 발표한 데다 뮤지컬 '엘리자베스' 등을 통해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주면서 톱가수로 자리를 잡았다. 광주의 경우도 포스터 한장 부치지 않는 등 일체의 광고 없이 5000석 전석을 일치감치 매진시켰다.

같은 날인 20일과 21일 두차례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공연을 진행한 김범수의 공연 역시 토요일이었던 26일의 경우 3000석이 매진돼 티켓을 구하려는 이들이 많았다. 몇년전 광주 공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승환의 경우도 올해는 흥행에 성공했다. JTBC 인기 프로인 '히든싱어'에 출연하며 '공연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각인시킨 덕이다.

31일 염주체육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성시경의 경우도 3층 좌석 일부를 제외하고는 표가 거의 판매됐다. 26~28일 공연되는 뮤지컬 '레베카'는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90% 이상 티켓이 팔려나갔다.

지난 4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장사익 콘서트 티켓 역시 매진됐다. 장사익은 광주 공연에서 항상 매진을 기록 해왔다. 또 오랜만에 광주를 찾은 임형주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김대중컨벤션 제2센터가 문을 열면서 공연장이 늘어난 점도 올해 콘서트 풍년을 이끈 이유 중 하나다. 광주에서 대형 콘서트가 가능한 공연장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염주체육관, 김대중컨벤션센터였다.

제2센터 개관으로 공연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지역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에서 직접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악동뮤지션과 불후의 명곡 공연이 동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황인근 티켓 마루 대표는 "박효신·성시경·김범수 등 대형 가수 3명이 며칠 사이로 광주에서 공연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워낙 티켓 파워가 있는데다 관객층도 달라 티켓 판매가 잘됐다"며 "제2센터 개관이 공연 시장 활황에도 역할을 한 것같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타잔' 박흥숙 진혼제

무허가촌 철거반원 4명 살해 혐의 사형 34년만에

도시 빈민의 상징 '무등산 타잔' 박흥숙의 진혼제(鎭魂祭)가 23일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

1977년 4월20일, 당시 21살이었던 박흥숙은 무등산 덕산골 무허가촌에서 자신의 집이 철거되는 것에 격분해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다.

22일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주관으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조봉훈(62)씨의 제안에 따라 고인의 영령을 추모하는 34주기 첫 진혼제를 치를 예정이다.

이날 치러지는 진혼제에는 유가족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진혼굿에 앞서 김상집 5·18 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장이 사건의 진실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발제를 하고 박몽구 시인이 추모시를 낭송한다. 참석자는 사건이 발생한 무등산 덕산골 현장을 답사한다.

/백희준기자 bhj@

남원~곡성간 국도 통행 시작

국도 17호선 남원~곡성도로공사가 마무리돼 23일 오후 4시부터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이 공사는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에서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에 이르는 11.9㎞ 구간을 4차선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착공했다. 신설 도로 중 요천교 부근 남원방향 도로 모습.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공〉

항공권 인터넷 발권시 출국 20분 단축

국토부 탑승수속 간소화…부칠 짐 없으면 카운터 안거쳐

인터넷으로 발권한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이제부터 인천·김포공항에서는 항공사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국토부는 22일 "이 같은 탑승 수속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승객이 출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20분 단축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금까지 국제선 승객은 인터넷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항공사 카운터에서 신원 확인 후 종이탑승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 배정 등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은 공항 출국장에서 전자 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탑승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김해·제주 등 나머지 공항에서도 내년부터 전자 확인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흔들흔들' 이순신 대교, 차량별 통제기준 만든다

전남도-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협약…내년 상반기 시행

전남도가 국내 최장 경간(교량의 지주와 지주 사이)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은 물론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 초장대교량사업단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이순신대교 흔들림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전남도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23일 이순신대교 흔들림 현상의 원인 분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와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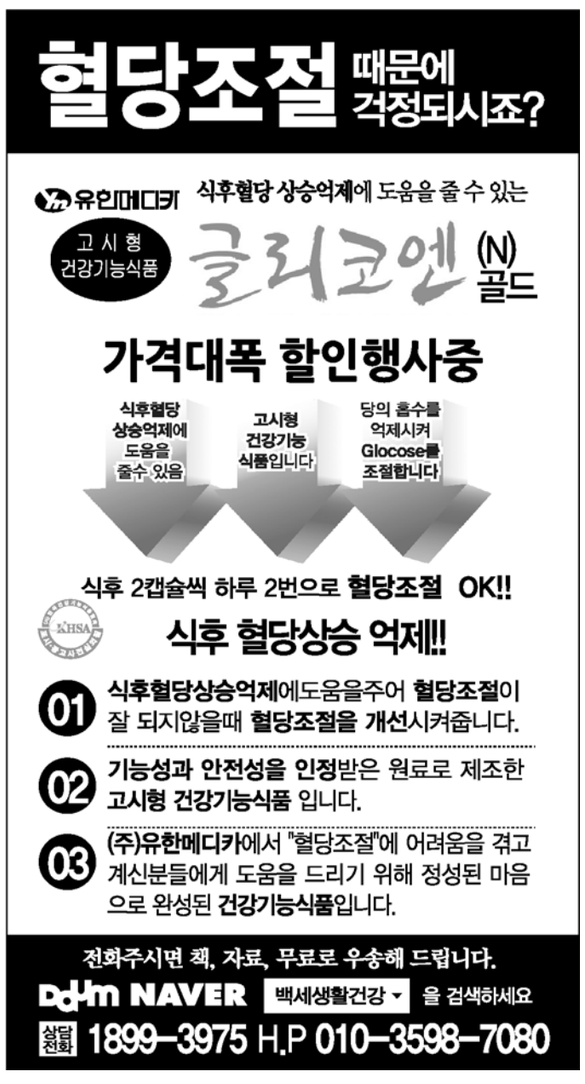
이번 기술교류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특수교량의 노하우를 상호 교환해 이순신대교의 장기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KIBSE·회장 고현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국내 특수교량 관련 교수 및 전문가 59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앞서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는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 최근 이순신대교를 1/70로 축소한 모형을 제작해 풍동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학회 측은 지난 10월26일 흔들림 당시의 상황과 같이 천막을 설치하고 초속 7~10m의 바람을 일으키자 와류 진동이 발생, 흔들림 현상의 원인이 난간에 임시로 설치한 가림막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번 기술협약에 근거해 이순신대교에 대한 '사용성 기준'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바람의 속도나 흔들림 정도에 따라 차량별 통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초에는 국내 최고의 계측 시스템을 갖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초장대교량 유지관리 노하우를 가진 한국도로공사 초장대교량사업단과 각각 기술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국내 특수교량의 최고 전문가집단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와 기술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순신대교에 대한 사용성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관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